

# 세상만사 신경쓸 것 다 쓰면서 소는 언제 키워?

## 산청 안적사 한주 성원 스님



성원 스님은 ... 1958년 불국사 석굴암으로 출가하여 다음해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대중사의 문하로 입실했다. 1961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를 받은 뒤 30여 년 동안 각종 중무소임을 맡았다. 소임을 맡은 가운데 <금강경> 10년 독송의 발원을 성취했고 일종식과 장좌불와와 관음100일기도 성취, 1000일 간의 <반야심경> 사경과 <금강경> <법화경> 사경 등을 원만 회향 했다. 1988년 이후 제방 선원과 토굴 등지에서 수행에 전념해 오고 있다. <수행 날개를 달다> 등 수행안내서를 발간했다.

장마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여 전화를 드렸다. 여전히 밝고 건강한 목소리로 “그렇지 않아도 자네를 생각하고 있는 참”이라고 하셨다. 반가움의 표현이거나 생각했는데 “마침 양평에 올라와 있는데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느냐”는 말씀에 바짝 침이 말랐다.

작년 지리산 매화가 눈을 뜰 무렵에 산청에서 보였을 때, 온 힘을 기울여 쓰시던 글이 완성되었음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평생 수행의 결실을 한 권의 책으로나마 남겨 “후배들이 좀 덜 헤매고 밝은 길을 가길 바란다”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던 것.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아침, 도봉산 언저리에서 성원(性元 85)스님을 만났다. 먼저 A4용지에 꼼꼼하게 쓴 글을 복사하여 묶은 얇은 책 하나를 내놓으셨다. ‘정법송(正法頌)’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 왔다.

조계학인의 바른 수행 길은 정법안장에 있네. 범천왕의 간절한 요청으로 불법이 비로소 시작됐네.

부처님 법의 요지는 세 곳에서 전하셨는데 영산회상에서 연꽃을 들어 보인 영화미소이고 다자탑 앞에서 나투신 반자리를 나눔이요 사라쌍수 아래서 광 밖으로 나투신 두 발이시네.

능엄에서 설하신 설산의 대력백우는 진성의 출현 소식이요 진성의 첫 걸음은 두정(頭頂)의 니한공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네. 업식의 본래 고향은 배꼽아래의 명문이요 업을 벗어나기 위한 첫 출발에는 능엄신주를 반드시 외어야 하고 진성과 업식의 동행상수라야 생로병사가 있는 화택을 가히 벗어날 수 있네.

소를 찾는 목동 조계의 학인아! 삼처전심하신 수행정로에 들어와 용맹정진하여서 환골탈태하는 영방(靈方)을 찾아 나가소서.

글은 읽겠는데 뜻을 이해할 수 없군요.

“자네가 잘못되었거나 내가 잘못된 것이겠지? 우리가 이 한 구절 글로 말이 필요 없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지난 열반제일에 이 글을 완성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평생 짊어지고 오던 짐을 일순간에 내려놓은 기분이랄까? 아무튼 차근차근 읽어보면 뭔가 열리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동안 생각해 오던 삼처전심(三處傳心)과는 좀 다른 관점이 아니냐 싶습니다만?

“그렇게 보이냐? 우선 정법안장(正法眼藏)이란 말을 먼저 봐. 뭐가 보여?”

좀 난해했다. 갑자기 혼란스러웠다. 정법안장이니 삼처전심이니 하는 단어가 기본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콕 막히는 느낌 내지는 목 졸기가 켜져 오는 기분. 정법안장이야 선불교에서 자주 쓰는 용어로, 부처님의 바른 법이 교외별전의 수단을 통해 전승되어 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 삼처전심은 말 그대로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한 것이니 영화미소를 비롯한 유명한 세 가지의 일화를 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삼처전심은 정법안장의 시원(始原)으로 부처님이 가섭에게 비밀하게, 교외별전으로 전한 가르침이다.

그런데 성원 스님이 지은 ‘정법송’을 눈으로 읽자니 이 두 단어의 개념이 상당히 난해하게 다가왔다. 머리를 꺾적이고 몸을 한 잔 마셔야 했다.

글쎄요. 특별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그렇게 보이냐’ ‘먼저 봐’ ‘보여’ 라는 말로 자네에게 질문을 했지? 그 짧은 질문

### 삼처전심은 결론 아닌 수행과정

### 정법안장의 근본원리 설명한 것

에 본다는 말이 세 번이나 들어 있어. 정법안장의 안(眼)자는 눈을 뜻하지? 해석하면 눈에 감춰진 바른 법이 되잖아? 여기에 삼처전심의 의미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힌트가 있어. 자, 먼저 영화미소(拈花微笑)야.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이시니 가섭이 그 뜻을 알고 빙그레 웃었다는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이 꽃을 들고 가섭이 웃었다는 것만 생각했지 부처님이 든 꽃이 어떻게 가섭에게 전해졌는가를 생각하지 않았어. 가섭은 눈으로 그 꽃을 본 거야. 부처님이 든 꽃을 눈으로 인식하고 눈으로 인식하는 순간 그 의미를 간파하고 웃었던 것이지. 그렇게 부처님 마음이 가섭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두 분의 마음이 같아졌다는 것이지. 먼저 안장의 단계, 눈 안에 감춰진 진성(眞性)을 파악하는 지혜를 드러낸 단계가 완성된 것이지.”

그리고 보니 우리는 ‘본다’는 말에 인식하고 느끼는 받아들이는 감각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팔경도의 맨 처음이 정견(正見)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육신의 기관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야. 불교는 마음 닦는 종교라고 하지? 너도나도 마음, 마음 하고 입만

열면 마음타령이야. 마음이 어쩔다고? 마음이 저절로 병들고 약해지고 비겁해지고 그러는가? 참 마음이라는 말도 자주 쓰는데 마음에 참 거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인가? 아니지, 마음, 그러니까 진성이나 반야는 병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병들고 고장 나서 마음작용을 흐리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다고 소란피울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관계를 잘 알고 몸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마음과 원융하게 하는 것이 수행의 바른 길이야.”

영화미소의 일화는 진리를 상징하는 꽃을, 눈으로 바로 보아, 본래정정한 마음을 증득하는 소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무슨 말이 그렇게 장황해?”

잠시 침묵. 그리고 스님이 ‘다자탑전심분반좌(多子塔前示分半坐)’를 설명 했다. 영화미소에서 눈 안에 비밀스럽게 감춰진 진리를 터득했으니 부처의 자리와 가섭의 자리가 하나로 결합되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부처님 나와 제자인 내가 함께 있어야 중생명이 교체된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스님이 ‘정법송’ 해설부분에 이렇게 해석되어 있다.

‘영화미소’로 얻어진 진성(眞性)을 눈을 통하여 영입(迎入)하여서 사대육신의 현장에 들어오도록 유인하여서 명궁(命宮)에 살고 있는 목녀(木女, 業識의 비유)의 유혹을 받아 명궁에 합궁(合宮)하게 되면서 진기(眞氣)가 발생하고 그 진기의 위력으로 허물어져가는 인체육신을 수리하고 다니는 그 묘상(妙狀)을 그려낸 것이다. 인식을 통해 들어 온 진성과 명문에 살고 있는 업식이 합가(合家)하면서 묘력을 발생하고 그 묘력으로 업장을 소멸해 가는 묘행이 시작된다.’

‘분반좌’의 일화에서 부처는 절대진리 즉 진성이고 가섭은 의식의 상징이니, 중생심을 벗어던진 가섭이 부처의 경지에서 함께 노니는 것이다.

박시생부는 ‘생사의 초월’ 내지는 영원한 진리의 상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 누가 아니라고 하겠냐? 진성을 받아들이고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된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 광이라는 껍질을 깨고 두 발로 나간다는 거야. 사대육신의 인체 안에 저장된 업식의 유전자를 지우려는 것이 수행이야. 그런데도 마음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는가? 삼처전심은 그저 세 군데서 비밀히 전한 결론이 아니고 그 자체가 수행의 과정인 것이야. 부처님은 이미 생전에 수행의 길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속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겉모습에 정신을 팔고 있었던 거야. 다시 말하지만 마음도 반야도 병드는 것이 아니야. 육신의 업식이 정화되지 않아서 끌려 다니면서 고통 받는 것이지. <능엄경>에서는 히말라야 설산의 ‘대력백우(大力白牛)’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놈이 보리(菩提, 진리)의 종자거든. 알고 보면 우리

### 경전사경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 내지: 70장 자연색메트지
- 표지: 레저크지 읍셋 4'
- 제본: 한장본 실재본
- 크기: 220mm×310mm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춤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업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가 20,000원(1권)

- 내지: 한지 108장
- 표지: 레저크지 읍셋 4'
- 제본: 한장본 실재본
- 크기: 435mm×300mm

### 사경지

반야심경 탐사경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가 200원

- 구성: 한지날장
- 크기: 636mm×313mm
- 종류: 한문, 한글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종이영가옷 (남자/여자/동남/동녀/수자)

A형-남 정가 1,500원 A형-여 정가 1,000원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정가 1,000원

C형-남 정가 1,200원 D형-여 정가 1,100원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정가 1,000원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정가 50,0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금강경다라니 정가 250원 할인가 180원 (600개 이상) 크기: 53×180cm

한지점은 영가옷/위패 각100개 30,000원 남자옷/여자옷/위패

종이신발(남/여) 종이짚신 1켤레 할인가 1,300원 (100켤레 이상) 정가 1,600원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드가 필요한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121068-56-042256 ◆우체국:612416-02-031008 [예금주:강태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묘법연화경

할인가 28,000원(10권 이상) 정가 40,000원(1015페이지)

불자수지속송(칼라)

할인가 500원 (200부 이상) 정가 850원 (양면포장)

# 앞으로 소를 길러봐. 이 사람이

몸의 구조 또한 삼처전심의 묘행을 보여주고 있어. 전통 사찰의 가람배치도나 티베트의 태장제도, 우리나라의 지형도 역시 이러한 이치를 도상의 기본으로 하고 있지."

스님의 설명은 자세했지만 듣는 귀가 어두워 다 이해할 수 없었다. 진성과 업식의 결합과 출입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수행의 요체라는 입장에서 듣는 바는 이렇다.

두정(頭頂), 즉 정수리에는 진성이 드러나는 문이 있다. 불화에서 불보살의 정수리에서 우주의 온갖

## 진성·업식이 한 집에서 만나

## 묘행의 힘 기르는 것이 수행

기운이 들어오고 나오는 모습이 그려진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인체로 드러나는 진성의 표현인 것이다. 인체도에서 사람의 머리 부분이 가람배치도의 법당자리이고 불화에서는 부처의 자리다. 한반도지형으로는 백두산 천지에 해당된다.

두 눈을 통해 정법안장이 드러나는 것이니 가람에서는 석등을 밝혀 우주로 빛을 내보내고 불화에서는 좌우의 협시보살을 통해 진성의 빛을 중생계로 비춘다. 한반도는 백두대간의 줄기를 따라 진성이 흐르고 있으니 자장율사의 5대 적멸보궁이 그 기운의 출현이다. 몸의 신장 부분은 가람에서 양쪽 계단으로 설치되어 가교가 되니 불화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그곳에 위치해 있으며 한반도에는 끊임없이 산맥이 흐르고 이어지며 정맥을 형성한다.

인체의 단전은 가람의 보제루다. 진성과 업식이 합공하는 곳이라 했으니 명공(命宮)인 것이다. 불화에서는 보살의 세상에서 중생계로 통하는 부분으로 묘사되고 한반도의 지형상으로 보면 지리산과 영축산 등 대간과 정맥의 기운을 갈무리하는 큰 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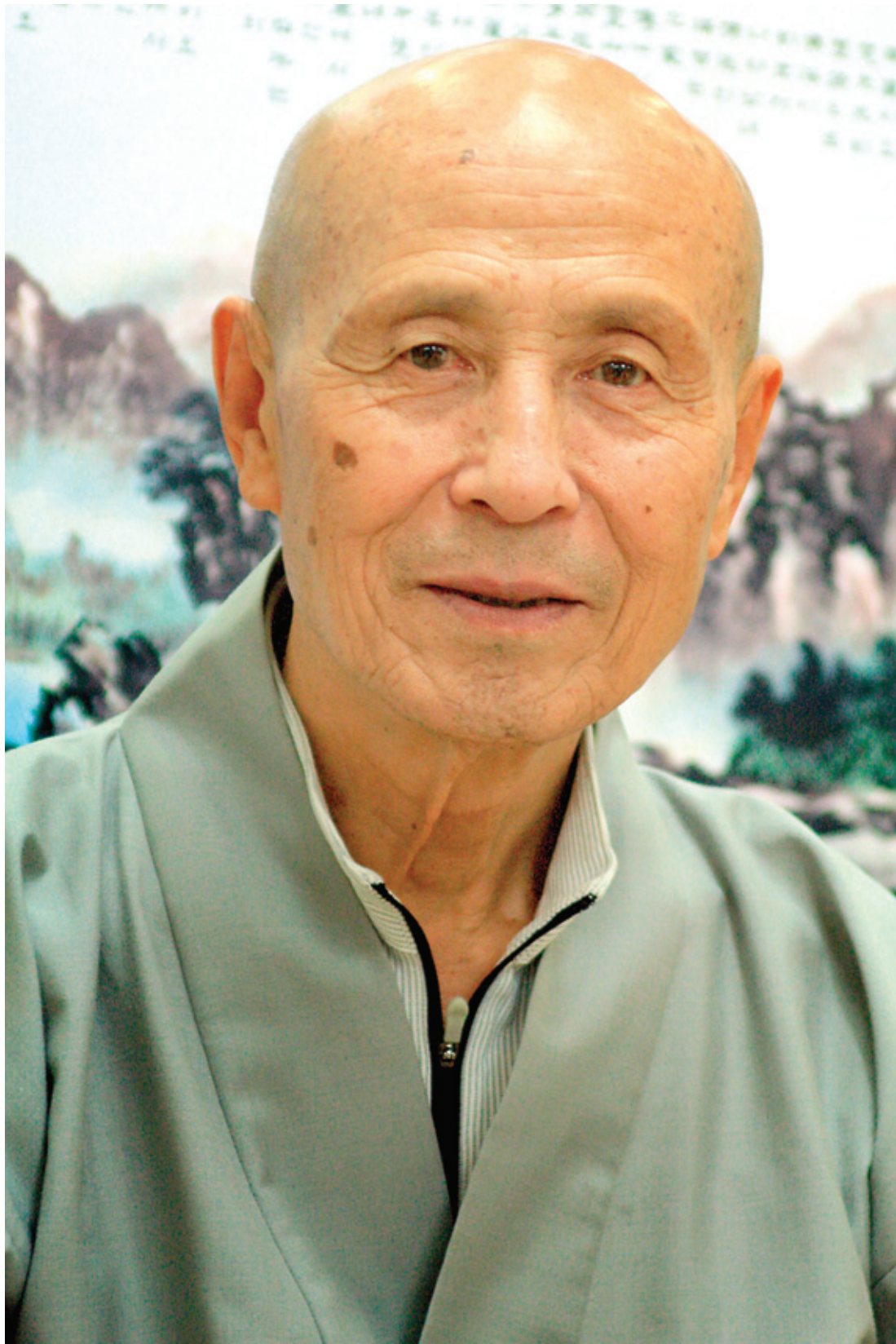
단전에서 융합한 진성과 업식이 두 다리로 내려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가람에서는 계단을 통해 일주문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표현 된다. 광시쌍부다. 불화에서는 연꽃이 만발한 중생계이니 이미 중생계에 극락이 갖춰져 있음이다. 묘하게도 한반도에는 남쪽에 수많은 섬이 있고 바다 멀리 제주도도 가 솟구쳐 있다.

스님은 '정법승' 해설집의 뒷부분을 잠시 읽어 보라며 펼쳐 주셨다. 스님의 진심이 담긴 대목이었다.

"새벽을 여는 목탁소리 산사의 적요를 뒤늦게 듣고 있다. 동창이 점차 밝아지면서 인기척이 점차 높아진다.

중생계를 고쳐 보려고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이 세상 어딘가에 절절한 수행방법이 있을 법 하여서 세속의 인연을 끊고 찾아 헤맨 세월이 그 얼마였던가?

가고 오고 허우적거리면서 걸어 온 험난했던 그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더러는 웃고 더러는 울고 이 길목 저 길목을 기웃거리면서 동서사장을 무척이나 드나들다가 이제 겨우 정법안장을 알아서 걸어가고 있다.

아, 아까울사. 날이 저물어 땅거미 지니 이제 그만 내려를 접어야 할 인생의 종착역에 기대 서 있네. 주마등처럼 지나간 나날들의 회상 속에 잠겨 그래도 아쉬움 남아 뒤돌아보니, 어허 서산에 붉게 타는 해는 수미산에 걸려있네. 그 위를 나르는 외기러기 저 녀 길을 재촉하고 있구나.

인젠가는 이 길에 다시 돌아와서 그 옛날 부처님

께서 밟으셨다는 니련선하의 강가에서 모래를 밟으며 하얀 발자국을 남기면서 지난 시간들을 헤아려 보고 싶구나...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네는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니 설산의 '대력 백우'를 기르는 목동은 아니잖아. 앞으로는 소를 길러 봐. 이 사람이. 그렇게 세상만사 신경 쓸 것 다 쓰면서 소는 언제 키워? 하하하."

임연태 논설위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 할(喝)

사람마다 기호(嗜好)가 다르듯이 심신의 치유방법도 다양하다.

필자는 지친 육신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새로이 모색하고 있다. 클래식을 감상하는 것이다. 음악감상을 하다 보면 음악의 아버지 바흐도 만나고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쇼팽의 <이별의 왈츠>도 정작 시공을 초월하여 쉽게 대하게 된다. 모차르트의 신동으로서의 음악적 재능도 후대에 와서 재평가 받고 있다.

'속달된 작곡가의 기준에서 볼 때 모차르트의 초기 작품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가장 초기에 나온 것은 대개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점차 발전해 왔다. 모차르트가 어린 시절에 작곡한 협주곡, 특히 처음 일곱 편이 피아노 협주곡은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재배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걸작으로 평가 받는 진정한 모차르트의 협주곡은 스물한 살 때부터 만들어졌다. 이는

첫째 금강왕보검(金剛王寶劍)과 같은 할이다. 이 할은 견고하고 예리하며 어떠한 것이라도 단번에 일도양단 할 수 있다. 그래서 미혹, 사견(邪見), 망상(妄想)을 한 찰나에 끊을 수 있는 능동적인 할이다.

둘째 거지금모사자(露地金毛獅子)와 같은 할이다. 백수의 왕으로 황금의 털이 덮인 사자가 땅에 웅크리고서 먹이를 낚아채려는 자세는 주위를 정적으로 몰아넣고 위압하는 듯한 할로 수동적인 할이다.

셋째 탐간영초(探竿影草)와 같은 할이다. 탐간이란 낚싯대 끝에 찌를 매달아 놓고 물속을 노니는 물고기를 부초 즉 영초 아래에 모이게 하여 고기를 잡는 어구(漁具)이다. 결국 상대의 묘안을 엿보아 일할(一喝)할 때 진짜 인지 가짜인지를 파악하는 할로 유도적인 할이다.

넷째 부작일할용(不作一喝用)의 할이다. 이 할은 앞의 세 할과 같이 소리를 내지 않고 상대에게 자기 마음을 전하는 작용을 한다. 굳이

## 소리내지 않는 묵할의 경지 이르러야 성적내는 기간 학생·교수간 해후 바래

그가 협주곡을 만들기 시작한 지 10년이 흐른 시점이었다'고 심리학자 마이클 호위(M. Howe)는 그의 저서 <천재를 말한다(Genius Explained)>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역시 천재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성공이란 반복적 학습의 결과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선수행을 함에 지도방법이 다양하다. 그 중 하나가 잘 알려진 할(喝)이라 하겠다. 할이란 일반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는 행위이다.

선문(禪門)에서 처음 할을 한 경우를 보자. <진동록> 제6권에서 하루는 백장회선사가 대중에게 말했다. '불법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내가 지난날에 마조도일선사의 두 번째 할을 듣고 그 자리에서 3일 동안 귀가 먹고 눈이 멀었느니라.' 하였다. 이 할을 인용하여 제자의 지도 지침으로 잘 활용한 이가 임제선사이다.

임제는 수행자를 지도하는 수단으로 할을 <임제록> 감변(勘辨)에서 네 종류로 나누어 말했다. 감변이란 선승의 문답상량을 말하며, 서로의 견해를 시험하고 깨달음의 깊고 낮음을 살펴본다는 뜻이다.

말한다면 침묵의 할로서 묵할(默喝)이라고 함이 적절할 것이다. 이 할은 임운무작(任運無作)의 할이나 무공용(無功用)의 할이라 하겠으며 자연 그대로의 어떠한 조작도 더해지지 않은 할이다. 임운이란 '그대로', '자연스럽게' 정도의 뜻으로 운(運)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이 할이야말로 무할(無喝)의 할로서 최상의 할이다. 이러한 할이야말로 깨달음의 경지로부터 토해내는 일구이다.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에게 침묵으로 불이(不二)의 법문에 들게 했을 때의 침묵의 할이다. 이 묵할이 자연유할(自然流喝)이다.

이때때쯤이면 학생은 한 학기를 결산하는 기말고사를 마치고 교수는 성적을 매기는 시기다. 학생에게는 초조함이 교수에게는 번민이 따르기 마련이다.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묵할로서 서로의 심지(心地)를 헤아린 유마와 문수처럼 학생과 교수간에 출가분한 마음의 해후가 있었으면 한다. 성적의 결과를 놓고 어느 학생은 양달머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흥정으로 타산이 맞으면 물건을 사고 파는 저자거리의 상행위가 아님이 성적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말이다. 인생은 히말라야산에 사는 한고조(寒苦鳥)와 같은 것이다.

# 찬 덕 불 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흥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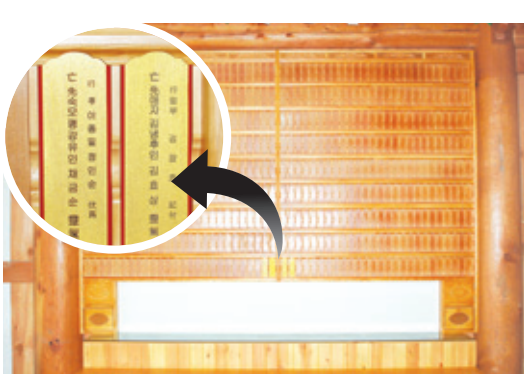
운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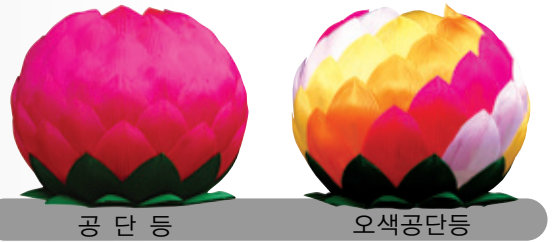
## 아름다운 등



팔각접등영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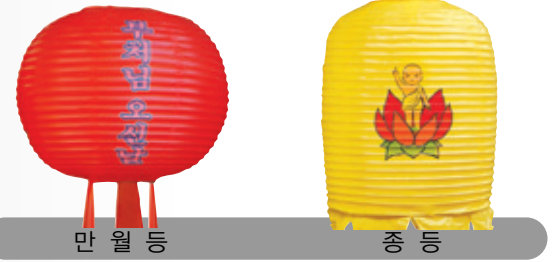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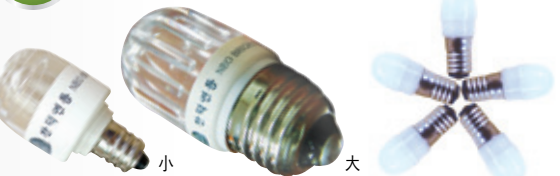


만 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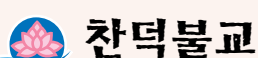


종 등

##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영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연등, 주름등, 전선시공,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빛가득 특징

● 시설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